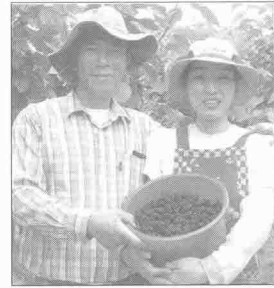


오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향상



문 응 주 사무장부부
전북정음지

당신 맘은 눈부신 햇살 때문에 설레인 적은 있는가? 당신 맘은 보드레한 바람 때문에 흔들린 적이 있는가? 당신 맘은 착한 농심 때문에 감사의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가? 당신 맘은 농업인들을 위해 뜨거운 땀별 아래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감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 이곳 정음시 용계동에서 6611m² 규모의 농장을 경영하는 문응주씨 농가 경영컨설팅은 농촌진흥청 잠시양봉소재과의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정음시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 교육 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농가경영컨설팅의 모델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 교육 도움 커

문응주씨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귀농한지 6년째다. 부모님이 복분자를 재배하고 있어 과수와 특작농사를 짓게 되었고 오디 뿐 아니라 야콘, 둥근마, 복분자와 복합영농을 경영하게 됐다.

“작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처음부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갔죠. 재배기술 교육과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았고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해 생산하는 만큼 원활한 판매가 중요했기에 판매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정보화교육 중에 홈페이지 운영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산물 전자상거래 연구모임 가입을 권유받아 지난 2006년 12월부터 농산물전자상거래 연구모임활동을 시작했어요.”

문씨는 “블러그 활동과 홈페이지 개설을 위해 준비하던 중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2주에 한번 목요일에 실시한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에 부부가 참여하여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자등록 등 관련법을 공부하고 가공과 상품화 방안, 상품 사진 찍기, 고객관리 등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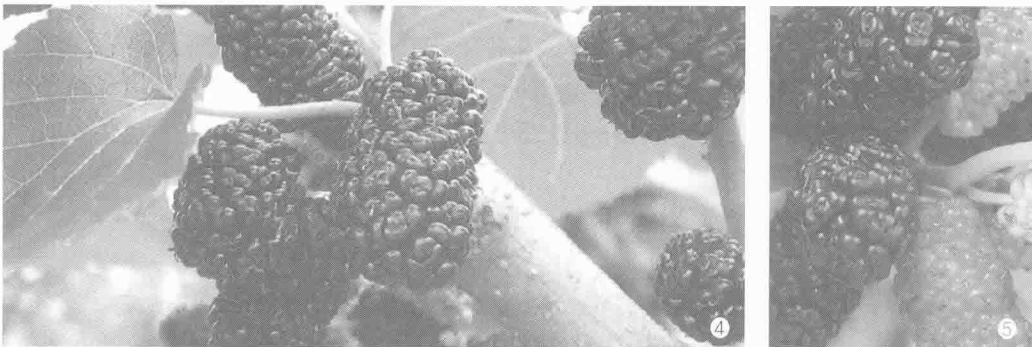


1. 문응주씨 오디농장에는 청일뽕, 대성뽕, 과상2호 등 30여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성규병 박사는 오디 생산용 품종선택 뿐 아니라 재배법, 뽕나무 수형 만들기, 병해충 방제 등에 대한 기술보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 2~3. 아내 조오순씨는 오디 가공·판매 등을 담당한다. 현재는 뽕잎비누, 오디 효소, 오디즙 등을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문응주씨는 정읍지역 전자상거래연구모임 25명의 회원과 정보교류를 통해 천연비누 제작 아이디어를 얻어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목인 오디, 복분자, 야콘 3개 품목의 천연비누를 시제품 개발 판매하고 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김정엽 계장은 “이렇게 연구와 노력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블로그와 입소문을 통해 도시민에게 전량 소매 판매되고 있다. 소매판매를 통해 도시민을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구입한다. 도매시장 등의 판매보다 30% 이상의 소득이 증대하여 농업·농촌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진청 잠사양봉소재과의 적극적인 기술지원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는 오디 전용 육성 품종인 대성뽕과 대자뽕(맛나 오디뽕) 등을 농가 보급했고, 누에사육용 뽕나무 중에서 수원뽕, 청일뽕, 수성뽕 등을 보급하여 상품화 시켰다. 성규병 박사의 이러한 노력은 오디 생산용 품종 선택 뿐 아니라 재배법, 뽕나무 수형만들기, 병해충 방



- 4~5. 농업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오디에는 노화억제물질인 C3G와 고혈압 억제물질인 루틴, 혈압강화물질인 GABA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오디씨에는 불포화지방산이 87%나 들어 있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산품 전자상거래 특수사례

제 등에 대한 기술보급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기존 뽕나무 재배는 누에 사육용 뽕 재배였어요. 그런데 3년 전부터 기술지도를 받았는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한 오디 생산기술일 것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문응주씨는 “오디 생산에 편리하고 관리가 용이한 뽕나무 수형을 기술지도 받았다. 품종 특성에 따른 중간 만들기, 낮추 만들기 등의 수형인데 농진청 성규병 박사의 기술지도로 오디를 소득작목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오디균핵병 피해가 심각하여 농가들에게 골칫거리였는데 방제기술을 지원받아 고품질의 오디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와 농진청의 적극적인 기술지원이 농업인들에게는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규병 박사는 “앞으로도 병해충방제법, 비배관리 등 해야 할 분야별 연구가 많다.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방제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찾는 문응주씨의 홈페이지

문응주씨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직거래 판매를 하여 고객확보와 소득증대는 물론 농장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동반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 걸음 더 가까워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배하고 있는 오디, 복분자, 야콘 등 작물을 소비자들에게 연중 보여줘 신뢰구축과 방문할 수 있는 농장, 체험할 수 있는 장, 농촌을 알릴 수 있는 계기, 정읍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문응주씨의 홈페이지에는 농장과 농산물을 소개하는 코너, 계절별 농산물 재배현황부터 상품 완성단계까지 실시간 동영상 사진, 글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너와 불편사항,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농업 만들 터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 유통분야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농업의 비전을 보고 귀농했던 초심을 잊지 않고 부모님이 해 오던 농업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응주씨는 이제는 앉아서 판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소비자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우리 농업이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농산물을 이용

오디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 향상



6. 농진청에서 보급한 오디나무 터카-D
7. 올해 농진청 스타지도사로 선정된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김정엽 계장과 오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문씨는 “김정엽 계장의 적극적인 정보화교육이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늘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8. 오디를 먹을 수 있는 계절에는 체험학습장으로 바쁘다. 조오순씨는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소비자들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체험과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면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으로 우리 농업은 투명함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귀농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㉞

〈월간원예 2008년 7월호에서 발췌〉

연회비 미납 회원분들께 알립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연회원 여러분!
더욱 발전하는 협회와 회보발간을 위하여 1년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년 구독 기간이 완료 되신 회원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067-01-224657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우체국 012211-01-000320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제일은행 327-20-016036 예금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 후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회보』 구독 1년이 지난 연회원 일 경우, 연회비 : 10,000원
평생구독을 원하실 경우, 평생회원비 : 100,000원

본회의 회원은 통일회원, 평생회원, 연회원으로